

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 일시 | 2022. 7. 6.(수)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건설정책국<br>해외건설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오성익 (044-201-3516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남경웅 (044-201-3520) |
| 보도일시  | 배포 즉시 보도가능합니다.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한 - 우크라이나, 전후 재건사업 협력 구체화

- 우크라이나측, 마리우폴市 등 재건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
- 국토부, 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재건사업 적극 참여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6일(수) 원희룡 장관이 세르기 타루타(Serhiy Taruta), 안드리 니콜라이엔코(Andrii Nikolaienko) 등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(Dmytro Ponomarenko)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후 도시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.
- 면담에 앞서 정부는 7월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“우크라이나 재건회의”에 외교부 2차관,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.
- 이번 원희룡 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단 간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서 발표한 7,500억불 규모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이번 면담을 위해 방한한 세르기 타루타 의원은 “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%가 파괴되어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”라고 강조하며,

-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**그간의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市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.**
- 이에 원희룡 장관은 “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,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면서,
  - 특히, “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 지원을 얻어 **전쟁의 참화에서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재건한 국가로서 이러한 경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**”라고 강조하였다.
- 원희룡 장관은 면담 종료 후, 현재 추진 중인 **이라크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업계, KIND 등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** 지시하였다.
  -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정부·공기업·업계 합동으로 “**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**”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**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**이다.
  - 한편, 우리 업계는 알 포 신항만 공사(2,625백만불 규모),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(약 25억불 규모),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사업(약 30억불 규모) 등 **이라크의 전후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.**
- \* (알 포 신항만 공사) '21.1분기 착공(대우건설),  
(바그다드 경전철 사업,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사업) 사업 참여 준비 중